

여성발명! 가장 창조적인 21세기 가치실용

1903년 부인 마리아 스킨도프스카(Maria Skłodowska)와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수상한 압전효과·방사선 분야의 선구자 피에르 퀴리(Pierre Curie)는 “나는 믿는다. 인간은 새로운 발명에서 악보다는 선을 이끌어낸다.”라는 말로, 발명의 위대한 가능성과 지혜와 발상의 미래적 화두를 사회 전반에 이끌어 냈다.

글로벌 역동성이 중시되는 혁신의 시대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가 바로 국부(國富)의 원천이다. 그래서 21세기 세계적 경영 그루(Guru)나 글로벌 CEO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인간의 지적활동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고부가가치 영역은 바로 창조적 혁신 관점의 ‘발명’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발명은 시대를 초월한 국부(國富)의 원천

대한민국은 건국 60주년에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여 창조적 가치실용의 국민성공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지금 미국발(發) 금융 불안과 소비 침체, 끝을 알 수 없는 유가 상승,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차원의 원자재 가격과 안보적 식량가격 폭등으로 인하여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문턱에 다다른 고말았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새 정부의 ‘MB 노믹스’는 경제운용 기조를 분배적 안정에서 창조적 실용으로 정하고, 어려운 대외여건 불안 요인을 공격적으로 선제(先制)하는 것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경제 및 삶의 질 선진화의 세계일류 국가 건설을 위한 울퉁은 ‘거버넌스’ 관점은 무엇일까? 바로 국정 지표에서 밝힌 ‘무실(無實)이 아닌 ‘무실(務實)’의 가치실용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실용은 힘써 노력하여 활용 가능한 옹골찬 현실적 이익을 일구어 내는 것을 말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승자독식 무한경쟁의 디지털 신자유주의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생존의 미래가치인 감성적 집단 지성, 통섭의 지식융합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인식해 나가야 한다.

이를 반영하듯이 2008년 다보스포럼도 주제를 ‘협력적 혁신의 힘(Power of Collaborative Innovation)’으로 정하고, ‘창조성·도전성·유연성·자율성’을 지구촌 화두로 던졌다. 따라서 미래의 성장 동력을 위해서는 실용적 사고와 창조적 가치를 동시에 융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창조적 실용을 선제(先制)해 나가는 과정에서 최근에 고소득·전문직·감성소비를 주도하는 골드미스(Gold Miss), 알파걸(alpha girl), 네오파워(New Economic Order) 등이 등장했다. NEO 파워에는 일부 남성들도 있지만, 새롭게 형성된 이들 신조어 그룹들의 공통점은 보다 나은 똑똑한 여자

들의 출현으로 글로벌시대 실용 가치를 지향하는 세력을 총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창조적 가치실용의 시대에는 여성의 ‘지적 창조자본’을 여성의 자아실현 기회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자 실용자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선진형 글로벌 인재 대국은 반드시 국정전반에 걸쳐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 향상, 참여 및 활동의 가치를 창조성과 실용성으로 결부해 나가야 한다.

실사구시적 여성정책을 중요한 관점으로 부각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한미영**



시켜, 여성 특유의 감성(感性)과 섬세함, 배려와 섬김의 리더십, 그리고 창의성을 국가발전의 성장과 발전영역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그래서 21세기 창조적 자본주의와 인간적 생태문명 시대에는 여성(Female), 감성(Feeling), 팩션(Faction), 융합(Fusion), 패션(Fashion)의 이른바 '5F'가 사회적 자본의 핵심을 이루어야 한다. 5F 관점이 탄소 시대의 그린문화와 지식산업 발전의 성장점을 형성해야 한다.

이와 같이 지금은 여성의 질적 창조활동 여부에 따라 경제 및 삶의 질 선진화와 고품격 사회는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의 《사회복지서비스업의 현황과 정책방향》조사연구보고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사회의 여성경제활동 현실은 실용적 가치추진에서 인력활용의 효율적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저조한 수준이며, 취업분야도 사무직·판매직·서비스 분야 등 비교적 단순직종에 집중되는 후진적 구조의 취약성을 안고 있다. 전문적 기술연계와 전략적 활용의 미비로 고급여성 인력의 창조적 역량을 사회구조가 사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창조적 가치실용 여성정책은 여성을 가사노동과 단순서비스 직종에서 탈피시켜, 가치성·전문성·창조성을 적극 활용하는 선진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정보화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는 여성능력의 획기적 혁신방안을 여성부는 확충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여성의 가치창조 관련 정보네트워크(Net work)를 구축하고, 여성인력 양성체계 확충과 이를 창조적 실용분야에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교육과 여성발명교육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여성발명의 가치 확산이 실용정부 여성정책의 초석

2008년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 100주년이었다. 유엔은 올해의 주제를 '여성 투자(Investing in Women and Girls)'로 정하고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념과 각종 토론회의 화두로 삼았다.

여성 경제력 향상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여성의 능력 발휘와 가치향상이 더 건강하고 더 희망적인 미래의 성장사회를 만든다는 점이다. 또한 여성 경제력 향상은 바로 글로벌 역동성 차원에서 삶의 질 선진화 향상으로 직결되고 있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력 향상은 가정경제는 물론 아이들의 교육과 건강증진으로 이어

져, 결국 사회적 성장과 자본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이 가장 핵심이다.

이런 관점에서 여성의 지적 창의성을 경제력과 가장 밀접하게 엮을 수 있는 실용방안이 바로 여성발명이다. 그래서 한국여성발명협회에서는 일상의 번득이는 아이디어와 창안을 경제적 가치로 연계하기 위해 발명에 관심 있는 여성들에게 다양한 의욕과 용기를 북돋워 주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창조적 잠재력을 지닌 여성들이 실용적 발명 아이디어를 비즈니스와 연계하고,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되지 않은 창작아이디어를 보호해 줌으로써 사회전반에 걸쳐 발명 분위기를 진작시키고 있다.

또한 발명과 창조적 가치에 관심 있는 여성뿐 아니라 잠재된 창의성을 가진 많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발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실용적 교육을 통해 여성발명의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다.

세계여성발명대회, 한국 여성리더십의 '티핑 포인트'

그동안 이런 지식기반 발명여성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실용적 성과의 결과로 지구촌 최초로 세계여성발명대회가 한국에서 열리게 되었다. 오는 5월 8~10일에 서울 코엑스에서 세계 30여개국 300여명 이상의 참가가 예상되는 '2008 세계여성발명대회'는 명실상부한 세계여성발명인들의 지적교류와 정보 네트워크의 동심원이 될 것이다.

이번 대회의 가장 중요한 의의와 시사점은 한국이 세계 여성발명을 확산시키는 진원지가 되었다는 점과, 한국 여성발명인들이 세계 여성들의 창조적 지식리더십의 이니시어티브를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국제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여성발명가들이 활동을 펼치고 있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지목했다. 이런 명성에 걸맞게 한국여성발명 특허출원 증가율은 2007년에 21.8%로 급증하여 여성발명의 가치성과 경쟁력을 국내 외에 입증시켰다.

따라서 한국여성발명협회는 지금 이러한 자긍심과 발명역량의 확장으로 이번 세계 첫 세계여성발명대회를 반드시 성공시키고자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미국경쟁력위원회 위원장인 데보라 윈스미스가 극찬한 한민족 여성들의 '창조적 발명 DNA'를 이번 대회에서 유감없이 발휘하여, 한국 여성의 위상강화와 사회적 가치 증진을 지구촌 전역에 확산시켜 나가고자 한다.